



STUDENT NUMBER

CENTRE NUMBER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2000

KOREAN FOR BACKGROUND SPEAKERS

2/3 UNIT (COMMON)

SECTION II PROCESSING WRITTEN INFORMATION (20 Marks)

*Total time allowed for Sections I, II, III and IV—Three hours
(Plus 5 minutes reading time)*

DIRECTIONS TO CANDIDATES

- Write your Student Number and Centre Number at the top right-hand corner of this page.
- The question in this Section is **COMPULSORY**.
- Answer the question in the spaces provided in this paper.
- The answer **MUST** be written in **KOREAN**.
- Allow about 45 minutes for this Section.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어로 다음 문제를 완성하십시오.

Complete the following question in KOREAN, using the written information provided.

QUESTION 5

다음에 주어진 세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 이라는 제목의 논설문을 150 내지 200단어로 쓰시오.

Read the following three passages, then write an essay in 150–200 words in KOREAN entitled 'Our appropriate attitude towards living in contemporary society'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se three passages.

PASSAGE 1

지난 時代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개인의 出世보다 민중과 다 같이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자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고 내걸었던 것발, 그것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은 때맞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한 사람의 열 걸음을 열 사람의 백 걸음으로' 만들어가는 개인의 創造力과 나눔의 확산이 참된 진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각 분야에서 自己 실력으로 '뜨는' 개인이 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떴다'라는 말은 출세했다는 말이다. 곧 세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세상속으로 민심속으로 들어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출세한 사람 대부분이 그러하듯 떴다는 것은 삶에서 뿌리가 들떴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동떨어져 군림하는 위치에 선다는 말일 수도 있다. '뜬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죄가 되고, 뿌리뽑힌 나무처럼 양상하게 시들어져버릴수 있다는 말이다.

..... 중략

마찬가지로 삶에서 뿌리가 들뜨지 않으려면 성공을 위한 노력 못지않게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를 늘 성찰해야 한다. 성공한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나의 성공이 내 가난하고 없는 이웃들에게 무엇인지를 묻고 또 실천해야 할 것이다.

QUESTION 5 (Continued)

PASSAGE 2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항상 그늘이 집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항상 우울합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항상 불행합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항상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항상 생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항상 메마른 땅입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항상 사막입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항상 태양이 뜨질 않습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린이도 어른도 싫어합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새들도 짐승들도 싫어합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산천도 초목도 다 싫어합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천사도 싫어합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천사도 떠나갑니다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은 모두 친구가 떠나갑니다

PASSAGE 3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다. 역시 그 전축은 회원의 방에 있었다. 그리고 턴테이블도. 오랜만에 들어와보는 방이었다. 창가로 놓인 침대, 그 머리 곁으로 나란히 자리잡은 책상과 책장, 그리고 출입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전축…….

정수는 처음으로 회원의 방에도 불박이 벽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옷장이 왜 없을까 생각하며 돌아보던 그가 출입문 옆 침대 발치에 놓인 그 벽장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었다. 씩씩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정수는 자신이 외톨박이가 될 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톨박이여서 무심해졌다는 스스로에 대한 변명도 하고 있었다.

침대 옆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액자 속의 사진을 보자 더욱 그것이 변명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진은 작년 여름 태국에서 찍은 아내와 두 남매의 사진이었다. 딸 지원의 서울대 입학기념으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던 그들의 첫 해외여행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그들의 공간에 아버지의 자리는 없었던 것이 아닌지……. 정수는 그 액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자꾸만 외로움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QUESTION 5 (Continued)

[illegible]

QUESTION 5 (Continued)

[illegible]

End of Section II

BLANK PAGE

BLANK PAGE

BLANK PAGE